

- 국회사무처 시험 국어 문제 정답해설 -

1. 답 ③ 콘테스트 (O)

① 주스 ⇒ 주스(juice) ; ‘ㅈ’ 자음 뒤의 모음은 원어가 이중모음이더라도 단모음으로 표기합니다.

② 빼어로 ⇒ 피어로 ; 불어계열 외래어의 경우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나르시스트 ⇒ 나르시시스트(narcissist)

; 이게 좀 특이합니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narcissism과 narciss이 모두 사용되어서 narciss와 narcissist가 전부 가능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나르시시스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아이 새도우 ⇒ 아이새도(eye-shadow) : 외래어 발음이 장음이더라도 우리말 표기는 단음입니다.

※ 참고 : 다음을 구별하세요.

contest - 콘테스트(O), complex - 콤플렉스(O),

condition - 컨디션(O), control - 컨트롤(O), air-condition - 에어컨디션[혹은 에어컨(O)]

2. 답 ②

① 그녀는 맨날~ ⇒ 그녀는 만날~ ; ‘맨날’은 경남 사투리입니다.

③ 하늘을 나는~ ⇒ 하늘을 나느~ ; ‘날다’ 기본형의 ‘ㄴ’탈락 + 현재형어미 ‘~는’

④ 내 인생 최고의 바람은~ ⇒ 내 인생 최고의 바람은~

; 수업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노랫말 중의 한 부분이었지요.(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⑤ ~ 30년 세월을 아등바등~ ⇒ 아등바등~

3. 답 ②

① 이무영 - 대표적인 농촌소설가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직접 농사를 짓던 분이셨지요. 대표작품으로 <제1과 제1장>, <농민> 이 있습니다.

② 정지용 - 순수 시문학과 시인입니다. 해외문학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제 치하의 민족수난을 서정적인 시어로 잘 표현한 당대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구사가 아주 탁월했고, 1930년대 최고의 형상시인으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 월북시인으로 알려졌던 얼마 전에 납북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지요. 대표작으로 <향수>, <유리창>, <고향>이 있고 문집은 <정지용시집>이 있습니다.

③ 이인직 『혈의 누』 - 최초의 신소설로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된 작품입니다.

④ 김소월 - 토속적인 시어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1924년 순수 문예 동인지 <영대>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작품으로 <진달래꽃>이 있지요.

※ <영대>의 대표작가 : 이광수, 김소월, 김동인, 주요한

⑤ 이효석 - 1925년 <매일신보> 신춘문예공모전에서 시 <봄>으로 등단했습니다. 1928년 단편소설 『도시와 유령』을 발표하면서 경향문학의 동반자작가로 인정받았지요. 1930년대 구인회에서 활동하면서 발표한 『메밀꽃 필 무렵』을 통해 서정문학으로 전환했습니다. 동

반자 작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나왔던 대표작품으로 『노령근해』, 『상륙』, 『북극통신』 등이 있습니다.

※ 동반자 문학 : KAPF를 간접적으로 동조했던 1920년대 경향문학의 한 갈래. KAPF에 비해 경향적 색채가 다소 약했다. KAPF에서 1920년대에 직접적으로 동반자 작가로 인정했던 작가는 이효석과 유진오가 있으며, 1933년 KAPF 내부분열이 있었던 이후에 동반자작가로 활동했던 작가는 김기진, 장혁주, 이무영, 채만식, 유치진 등이 있습니다.

4. 답 ③ [뭍뭍](X) ⇒ [문뭍]

5. 답 ①

역사주의 비평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작가 및 사회가 역사적 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표현론적 관점과 연관됩니다. (예술반영론은 형식주의 비평과 관련이 있지요.)

② & ④ ; 구조주의 혹은 형식주의 비평은 작품 내의 형식이나 비유·상징 등을 분석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평 중에서 유일하게 내재적 관점에 속합니다. 현대문학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 요소를 취하고 있어 가장 일반적인 비평방식이라 할 수 있지요. 미국에서 특히 발달했기 때문에 “신비평”이라고도 합니다.

③ ; 마르크시즘 비평은 프롤레타리아 혹은 무산자, 하층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비평입니다. 사회주의 비평이라고도 불립니다.

⑤ ; 수용이론(수용론적 관점)은 작품을 감상한 뒤 나타나는 독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먼저 발달했습니다.

6. 답 ②

알심 - ㉠

1)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알심을 부리다.)

용례 : 영호가 오 선생이 더워하는 것을 알고 알심 있어 세숫물을 가져왔다.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

2) 보기보다 야무진 힘

용례 : 영식이란 위인도 그렇게 알심 있는 사나이는 아닌 듯싶었다. (한설야 『탑』)

3) ‘고갱이’의 다른 표현. 식물 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가늘고 무른 섬유질의 심.

7. 답 ⑤ - 정철 <장진주사> ; 최초의 사설시조이며, 권주가의 성격이 있는 시조.

지령적 기능은 명령, 지시, 권유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장진주사 내용이 “같이 술드세, 술마시자~” 하는 내용이라 지령적 기능이지요.)

8. 답 ②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저녁놀이 붉게 물든 강을 바라보면서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시적 자아의 그 옛날 실연 당한 첫사랑을 회상하며 그 슬픔을 심화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친구를 위로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9. 답 ③

10. 답 ④ ; 모두 접사가 첨가된 동사의 파생어입니다.

① 덧신 - 파생어, 꽃신 - 파생어, 지붕 - 합성어

② 뭇쌀 - 파생어, 날고기 - 파생어, 밤낮 - 합성어

③ 늦더위 - 비통사적 합성어, 작은집 - 통사적 합성어, 모가지 - 통사적 합성어

⑤ 높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어, 새빨강다 - 파생어, 드높다 - 파생어

11. 답 ③

전 제 - 글 (나) ; 학문의 정의 - 학문은 논리화된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이다.

본론 I - 글 (라) ; 논리에 대한 신뢰 - 학문은 논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독점해서 탐구하는 행위.

본론 II - 글 (가) ; 논리에 대한 불신 - 학문을 하면서 논리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 론 - 글 (다) ; 논리의 불신에서 오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

- 교수라는 이름으로 학문을 와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

12. 답 ②

“교수는 누구나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악법에 걸려~” ⇒ 교수가 논문을 쓰는 행위는 교수 본연의 임무입니다. 교수 입장에서 하기 싫어도 의무라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은 매 학기 2~4편 이상의 정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대학별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기준의 한 부분이지요.)

13. 답 ④

조선후기 문학의 특색

(가) 민속극과 판소리의 성행

- 주로 서민 중심 극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양반 풍자, 계세징인 같은 주제가 대부분이었지요.

한양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봉산탈춤』·『송파산대놀이』 등이, 지방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하회탈춤』 같은 탈춤이 유행하였으며, 판소리 또한 비슷한 시기에 광대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공연되던 주요 장르였습니다.

(나) 궁정수필 창작

- 주로 궁중 여인들에 의해 많이 쓰여졌습니다. 중기 이후 서간문의 형식을 취하다가 후기에 이르러서는 수필의 형식이 되었지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있습니다.

『계축일기』 ; 어느 궁녀의 수필. 인목대비의 서궁 윤페이후 광해군 폐위와 동시에 대비 복위과정을 기록.

『인현왕후전』 ; 어느 궁녀의 수필.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와 희빈 장씨의 책봉에 대한 기록.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와 관련이 있음.

『한중록』 ; 사도세자의 부인이며 정조의 어머니인 경의왕후(혜경궁) 홍씨의 서간체 수필. 자신의 회갑연 때 친정조카의 부탁으로 작성함. 남편 사도세자와 시아버지 영조의 갈등과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 등을 담담하게 기록함. 『한중만록』이라고도 함.

(ㄷ) 실사구시 사상을 배경으로 한 실학풍 문학의 등장

- 연암 박지원의 작품들 『양반전』, 『허생전』, 『열하일기』(기행집) 등이 대표적입니다.

(ㄹ) 시조집이 편찬

- 주요 주제는 효, 연군, 정치사회 등의 부조리, 강호가도(자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했지요. <청구영언>(김천택, 최초), <해동가요>(김수장), <가곡원류>(박효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시조집은 이 때 나오지 않았고, 1920년대 최남선의 <백팔번뇌>가 최초입니다.)

(ㄴ) 서민층의 인식확대와 산문화에 따른 변격 문학의 등장

- 사설시조, 잡가 등이 대표적이지요.

14. 답 ②

① 속담=관용어 ;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자, 비판, 교훈 목적의 속언.

(“미역국 먹다”와 같은 말은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일반어이다.)

② 사회방언 대표적 예 ; 군인 - 군바리, 해군 - 물개, 수감 - 은팔찌, 감옥 - 큰집

③ 전문어를 말합니다.

④ 속어 ;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통용되면서도 정통어법에는 벗어난 비속한 언어.

⑤ 금기어를 가리키는 설명입니다.

15. 답 ④

- 노름꾼, 사기꾼, 사냥꾼, 도굴꾼 등은 보기 (1)로 파생된 단어.

16. 답 ⑤

- ④의 경우 시조의 장편화·이야기화는 상층문화의 하향화, 무가의 상층 담화수용은 하층문화의 상향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⑤ 말의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조선후기 사회적 변화는 기존권력구조의 변화(지배권에서 밀려난 양반의 몰락 등)로 인해 국가 전체의 문화 동향이 변화되었다.”가 맞습니다.

17. 답 ③ ; 정약용의 서간문에서, ‘이익을 좇다 보면 옳음을 잃을 수 있음’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18. 답 ② ; 한번 실수는 누구나 한번쯤 다 하는 것이므로 크게 탓할 필요가 없다는 뜻.

19. 답 ④ ; 한·중·일 세 나라 사람의 행동을 통해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겠지요.

①, ③, ⑤번 지문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② ⇒ 인내심과 지혜를 언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20. 답 ⑤ ; 신화가 역사, 학문, 종교, 예술 모두와 관련이 있고(지문 ④), 그들의 상관물이며(지문 ①), 이야기의 방식을 갖고 있어서 문학작품의 일부일수도 있지만(지문 ③) 신화는 그 자체로서 신화(지문 ② - 특수성)라는 내용이 본론에서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21. 답 ⑤

작품 ;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그 밖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아리랑』이 있다)

성격 ; 현실풍자적, 희망적

주제 ; 진실을 향한 열망

등장인물 성격 ; 소년 파수꾼 다 - 진실을 알리려 하지만 지배자인 촌장의 유혹에 넘어감.

촌장 - 지배자. 흰구름을 이리떼라고 속여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려 함.

※ <파수꾼> 이해하기

이리와 소년에 대한 우화(寓話)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소년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골탕먹인다. 마을 사람들은 정작 이리가 나타났을 때에는 소년의 말을 듣지 않아 큰 피해를 입는다. 이 작품은 우화를 빌려 진실의 왜곡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재앙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의 결말에서는 소년이 촌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스스로 거짓 보고에 앞장 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객들은 이처럼 거짓의 길을 선택한 소년 파수꾼의 처지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고,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진실을 용기 있게 외치는 고통보다는 지배자의 달콤한 유혹을 선택하는 소년의 모습이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우화적 기법은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나 내용을 상징적으로 함축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줄거리

;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에서 파수꾼은 끊임없이 이리 떼의 내습을 감시한다. 파수꾼이 양철북을 두드리면 즉시 대피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나날의 연속이다. 파수꾼 '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 떼다! 이리 떼'라는 외침과 양철북 소리에 항상 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다'는 이리 떼를 본 적은 없다. 그 역시도 신호밖에 듣지 못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는 등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어느 날 저녁, '다'는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두려움을 안고 망루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이리떼라고 외치는 것의 정체는 흰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린다. 촌장은 '다'를 찾아와 이리떼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긴장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단결된 역량을 모아 나름대로의 번영을 지속시켰다는 말로 '다'를 설득한다. 촌장의 설득에 '다'는 망루에 올라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상의 업무로 돌아왔을 때 멀리 파수꾼 '다'의 외침이 들려온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22. 답 ⑤ - 정지용 <유리창>

; 유리창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시입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어를 통한 감정절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시적 자아의 어조는 담담한 어조입니다.

23. 답 ① ; 15세기에 있었던 자·모음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철자가 있고(ㅼ, ㅽ, ㅇ, ㅿ, ㅿ)

발음의 고저를 나타내던 가점(방점 - ˙, ː)이 소멸되었으며, 엄격하게 지켜지던 모음조화현상이 일부 파괴되었다.

24. 답 ① - 물아일여(物我一如) : 사물과 나(인간)의 마음이 서로 같음. 감정의 이입.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 (사람간에) 서로 마음이 통함. 염화미소, 염화시중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봄.

④ 무위자연(無爲自然) ; 자연과 벗하면서 사는 마음.

⑤ 추기급인(推己及人)

25. 답 ②

①(X) ⇒ 원형감옥 안의 정교하게 고안된 조명과 블라인드로 죄수가 간수를 볼 수 없을 뿐 시선이 서로 불균형인 상태인 것은 아니다.

②(O) ⇒ 감시자가 보이지 않는 까닭에 죄수의 입장에서 감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스스로 모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제레미 벤담이 생각한 원형감옥의 기능상 목적이다. 즉 원형감옥은 간수가 죄수들을 통제하는 것 말고도 죄수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중적 통제장치인 것이다.

③(X) ⇒ 제레미 벤담의 원형감옥원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다른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모른다.)

④(X) ⇒ 원형감옥은 감시자를 전지전능한 경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도구는 아니다.

⑤(X) ⇒ 피관찰자인 죄수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수단으로 하고는 있으나 감시자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목적은 아니다.